

“음력’ 토대로 삶과 죽음 성찰했죠”

“시를 쓰는 일은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거창하게 생의 비의(秘意)를 발견하는 일이라고도 하지요. 저는 삶과 죽음을 한통속으로 놓고 가벼운 일상의 관념 위에서 충돌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전통적 사유 가운데 ‘음력’의 개념을 빌려오게 된 것이구요.”



염창권 시인 '마음의 음력' 펴내

“죽음의 관념, 풍부하게 담아”
시·시조·평론 등 다양한 활동
문학은 동반자...치유의 방편도

지하면서 자유시의 방식이 혼합돼 있다. 두 장르의 '이경(異境)'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라고 할까. 염 시인은 “어떤 분들은 시조 형식의 분방함과 난해성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유시의 싱거움이 느껴진다고 한다”며 웃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을까. 오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무렵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에 쫓겨 나며 지 표현의 욕구를 좇아 자연스럽게 시를 쓴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대학시절에는 정기 간행물실에서 살다시피했다”고 한다.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더니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열쇠를 맡겨두더라는 것이다.

그는 언급대로 시와 동시, 시조, 평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활동을 한다. 보통의 각오와 노력 없이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같은 갈래에 속하므로 글쓰기의 원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 한편으로 “평론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니 창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도 그는 다양한 경계를 오가며 창작을 계속할 것이다. “문학은 저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문학에 무한정 다리가 폭 빠져서 마침내 한 몸이 된 상태이다. 문학이, 아니 시가 세상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시간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죽음에 대한 인식은 역으로 삶의 관념을 더욱 충실하게 해준다고 봐요. 다들 죽음이 무섭다고 피하려 하지만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 타는 갈증의 연속이겠지요. 즉 끝(finish)이 없다면 생의 의욕이나 목표도 없어지겠죠.”

“민소매 끈 지나간 곳, 가늘은 선 그어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 힘들게 건너가서는// 아무도, 그 경계선을 지워내지 못한다”(‘이경(異境)’ 전문)

“이경(異境)”은 서로 다른 경계를 뜻하는, 우리 일상에서 무수히 드러나진 이쪽과 저쪽을 의미한다. 시인이 바라보는 경계는 “아무도, 그 경계선을 지워내지 못하는” 원형적이면서도 운명 같은 선이다. 다른 작품 ‘18월’에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 ‘금기’를 스스로 설정한 시인의 속내는 작품에 대한 치열한 열정으로 읽힌다. “사랑은 스무날에 한 번씩 왔다가 갔다/ 마야 달력은 18월 뒤에 닷새를 추가했다// 남겨둔, 허기로 굶는 날// 너라는 울(鬱) 속에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은 기본적인 정형시의 틀을 유

최근 시집 ‘마음의 음력’ (발견)을 펴낸 염 시인을 만났다. 아직 여름 방학에 접어들기 전이라 캠퍼스는 몇몇 학생들의 모습과 우거진 녹음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염 시인은 예의 소탈하면서도 겸손한 인상이다. 오래 전부터 알아온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묻어난다. ‘문학인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적인 이미지나 ‘젠체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마야 달력에는 ‘18월’까지 달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 20일이니 360일에 5일을 더하면 365일의 태양이 완성되지요. 나머지 5일은 ‘우아얌’(Uayeb)이라 하는데 이 날들은 금식 기간으로 불길한 것을 쫓기 위해 스스로 고통에 처하는 날이지요. 사랑을 잃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5일간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 자기점검을 하죠.”

그는 처음에 시집 제목을 ‘18월’로 하자고 했지만 주위에서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바꿨다고 한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아얌(Uayeb)’ 같은 시간이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시인이란, 아니 예술가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작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작품집 제목에서 키워드 ‘음력’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사후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죽음의 관념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하고 싶었다”는 말에서 작품집 경향이 가늠된다.



생상스 음악속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 344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생상스의 곡들로 채운 이번 음악회는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와 임희영 첼리스트가 함께한다. 이날 공연은 생상스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전사한 친구 앙리에 대한 경의를 담아 쓴 곡 ‘영웅행진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첼로협주곡 1번’을 임희영 첼리스트와 함께 선보인다.

대미는 생상스가 30여년간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곡해 리스트에게 헌정했다고 전해지는 ‘교향곡 3번 오르간’을



첼리스트 임희영

최호영(오르간)과의 협연 무대로 장식한다.

임희영 첼리스트는 2007년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데뷔해 워싱턴 국제 현악 콩쿠르, 소란틴 국제 현악 콩쿠르, 시카고 베넷 첼로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로테르담 필하모닉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베이징 중앙 음악원 교수로 부임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달빛 아래에서...

영호남 달빛 대음악제,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영남 지역민들과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호남 달빛 대음악제’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영·호남 지역 사이의 문화예술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4월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린 음악회에 화답하는 자리다.

이날 공연은 흥세영 영남작곡가협회장, 고승익 한국작곡가회 부회장, 강보란 작곡가 등 광주·대구 지역 작곡가 18명이 쓴 곡으로 무대를 채운다. 정유봉 시인의 ‘환희’, 이상규 시인의 ‘봄에는’, 강문숙 시인의 ‘낮달’ 등 13편의 시에 각각 곡을 입혀 무대에 올리고, 김성훈 작곡가의 ‘협야사중주 제 3번’, 김재희 작곡가의 ‘Contrasts’, 염미희 작곡가의 ‘Nirvana’ 등 창작곡을 선보인다.

임영빈·현동현 테너, 소은경 소프라노, 이현정



강보란

메조 소프라노, 최득규 베이스, 김승근·김치영 바리톤과 함께 최선희·문은진(피아노), 박승원·김민지·채승화·김세강(바이올린), 윤서아(비올라), 박효은·오재경·오국환(첼로), 박해강(오보에), 안수영(플루트), 김대현(클라리넷) 등 광주·대구지역 음악가 20명이 출연한다. 또한 최재훈 지휘자가 지휘하는 연우현성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40-5754, 010-9881-5321.

/유연재 기자 yjyou@

‘윤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자 전동균 시인 ‘당신이 없는 곳에서...’ 펴내

“천마총이 발굴되면서 마을은 지상에서 지워졌고, 나는 대구로 서울로 부산으로 떠돌게 되었지만, 이따금 내 속에서 불꽃 튀어나오는 소년은 그곳의 사람들과 흠뻑새, 오래된 한옥들과 마당의 연꽃무늬 돌들, 무덤 위로 떠오르는 달빛과 짐승 울음소리, 새벽의 흰 물결... 그 어둡고도 신비한 삶의 풍경을 더듬더듬 불러내곤 한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운영하는 ‘윤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자인 전동균 시인이 신작시집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장비)를 펴냈다.

5년 만의 신작 시집에는 실존에 대한 탐색,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전착하는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문학평론가인 최혜석 인하대교수의 평처럼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 순간과 영원, 소

통과 불화 등 이항대립의 실존적 사건이 뒤죽박죽 얽힌 작품들이 다수 담겨 있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성찰과 종교적 감성은 시인의 시적 지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시인의 눈길은 종교의 울타리를 초월하는 ‘지금-여기’의 현실을 직시한다. 슬픔과 아픔의 삶일지언정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 기쁘다’고 (“떨어지는 해가 공중에서 잠시 멈출 때”) 노래한다.

시인은 현실과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상적 존재이다. 시인은 “결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것들”(‘있으면서 잊혀지면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그림자를 늘 응시한다. 그과

정에서 “슬픔을 빗으로 / 신음을 향기로 내뿜는”(‘춘수’) 노래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민정 시인은 추천사에서 “내가 바다이다 싶었는데 그 바다에 박힌 돌 같은 시를 만났으니 요리 영기고 조리 영켰거늘 더불어 이 부러움을 어쩔까”라고 평한다.

한편 전동균 시인은 중앙대 문예창작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시집 ‘오래 비어 있는 길’, ‘함허동전에서 서성이다’, ‘거룩한 허기’, ‘우리처럼 낯선’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I센터 체험프로 확대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17일부터 광주CGI센터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및 시민 대상 견학·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그 동안 주 1회 일반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광주CGI센터는 이번 확대운영을 통해 월, 수, 금 주 3회 일반견학과 기업탐방 직업체험, 영상제작 학습체험, 메이커스 제작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견학·체험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은 중학교 1학년 이상 청소년부터 일반 시민까지 가능하며, 1회 견학 가능 인원은 4인 이상 최대 30명 이내로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인원은 달라진다.

견학·체험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견학은 1주 전, 체험프로그램은 2주 전까지 미리 예약해야 한다. 문의 062-610-240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분~ 부자되세요!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h4>초대 화랑</h4>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p>	<h4>학산운명감정원</h4>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p>	<h4>클로버 부동산</h4> <p>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p>	<h4>루팡닭강정</h4> <p>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헬스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p>	<h4>토산철학원</h4>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4>동양철학원</h4>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h4>백세쭈꾸미식당</h4> <p>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p>	<h4>그 집 고기</h4> <p>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h4>태극익스프레스</h4>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p>	<h4>양지공인중개사</h4>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h4>무크광주세정점</h4>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p>	<h4>고흥나루터</h4>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영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p>
<h4>금강버티컬</h4>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블스크린, 전동블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블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p>	<h4>박당화랑</h4> <p>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4>으뜸공인중개사</h4> <p>북구 두암동 동시교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p>	<h4>고전방</h4> <p>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4>청학철학원</h4> <p>북구 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4>진주공방</h4>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상품 만들기 ☎010-3906-1718</p>
<h4>석당화랑</h4> <p>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4>신신예술의집</h4> <p>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4>국수나무용봉점</h4> <p>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p>	<h4>기담철학원</h4>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p>		